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2년도 표어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행동지침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신년감사 및 성찬식 거행

이번 주일은 2002년 들어 처음 맞는 주일로 우리에게 특은으로 허락하신 새해를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신년감사 예배를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드리게 된다.

이 시간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축복으로 받았던 뻔전 5장10-11절 말씀을 상기하

여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한다.

예배시간 중에는 신년감사 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다.

찬양예배시 순결서약식

우리교회는 매년 첫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순결서약식'을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식은 시춘기에 접어드는 청소년과 혼인전의 청년, 대학부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매스컴과 출판물을 통한 거센 세상의 유혹을 젊은이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 같이 지혜롭게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준비하고 있다. 순결서약식과 함께 받게되는 교회로고가 새겨진 금반지는 오늘 서약식에서는 모든 이들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를 맞을 때까지 항상 착용하여 증표로 삼게된다.

오늘 순결서약식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모두 80명이다.

오후 4시에는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모여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갖게된다.

참석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순결서약식 참석자〉

강운경, 김상우, 김선용, 김성용, 김시

오늘 공동의회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제외한 등록 세례교인 모두가 참석하는 공동의회를 갖게된다. 오늘 공동의회에서는 작년도 결산 및 신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된다.

청지기수련회 시간계획 확정

내일(7일, 월)부터 시작되는 2002년 청지기 수련회의 시간계획이 확정되었다. 5:00 -5:30 까지 특별세례기도회로 모이게 되고 5:30-40 각 분야별로 이동하여 5:40 - 6:20까지 각 분야별로 담당 구역의 강의를 듣게 된다. 강의가 끝나는 6:20에는 만나 홀에서 간단한 아침식사가 준비될 예정이다.

강남노회 신년 연합신앙수련회

서울강남노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강남지역 연합수련회가 1월14일(월) 오전9시 30분부터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1부 개회 예배 시 이중윤 목사가 설교를 하게되고 2부 순서로 민경배 목사(연세대)와 박중순 목사(충신교회)의 특강이 있게된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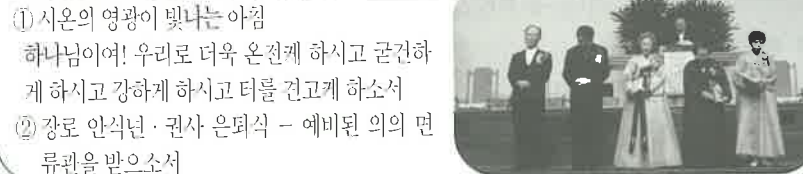
가족예배 출석카드사용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바른예배를 교육하기 위하여 1부 가족예배에 참여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예배 출석카드를 배부하고 예배 전 5분까지 오는 학생에게 출석 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원, 노수연, 박예린, 박찬서, 박혜림, 방극준,

신기욱, 권영준, 오경미, 오경식, 윤한영, 이주영, 이지혜, 이해지, 전창욱, 최지수, 강지현, 권순원, 김수영, 김용훈, 김지영, 박수영, 신기수, 이우용, 인사라, 인요셉, 전민혜, 정여연, 정희애, 정희윤, 전현로, 최근우, 최상훈, 편은희, 홍승현, 황지혜, 박희웅, 권순석, 김남훈, 김미래, 김성규, 김용현, 김경덕, 김현주, 김혜원, 박하은, 양시완, 옥정하, 이승섭, 이인영, 이태규, 전현욱, 정다울, 조경수, 진영재, 황지은, 김기숙, 박수진, 박은영, 백경원, 백소현, 안계인, 이준영, 한체영, 강지숙, 김성영, 김양규, 김영실, 김운수, 김지나,

박현주, 이용재, 조운경, 조인영, 최혜경, 황보인(80명)



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이여! 우리로 더욱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소서
② 장로 안식년 · 권사 은퇴식 -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소서

2002년 70인전도대 주력담당교구 및 부서

주간	수요일	토요일
1월 첫주	1교구A	빌립
둘째주	1교구B	안드레
셋째주	1교구C	베드로
넷째주	2교구	바울

태신자 명단

강영빈, 김범준, 윤승수, 성우제, 최경국, 인종민, 이상현, 김의환, 연승선, 이준성, 김영석, 이정수, 이태권, 이지영, 오소민, 차승준, 최지선, 정승원, (다음주계속)

1월 중 행사계획

- 1월1일 (화) : 송구영신예배
- 1월3일 (목) : 강남노회 신년하례회
- 1월6일 (주) : 신년감사예배 · 성찬식 · 순결서약식
수화교실개강, 평신도 신앙강좌 개강
- 1월7일(월)~12일(토) : 청지기 수련회
- 1월14일(월) : 강남노회연합수련회
- 1월31일(목) : 개척교회 지원전략 세미나

『2002년도 세에 표어 및 행동 강령』

표 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행동강령 : ① 내실 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②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③ 책임 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신년메세지

새해의 성도가 받을 축복



이종운 목사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남북한 민족 위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성도들에게 네 가지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희망찬 새해에 베드로 사도가 기도한 네 가지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케 되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습니다만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비를 받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곧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었기에 온전해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불이 없이는 정금이 될 수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했고 육신이 온전하지 못했고 환경이 온전하지 못했고 민족 사회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친히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므로 성도 역시 온전해야 합니다.

굳건하도록 축복하소서

굳건하다는 것은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든든히 세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무지개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거기에는 뿌리가 없기에 아침햇살과 더불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가 굳건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움을 받은 성도는 의심하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하게 되도록 축복하소서

온전하고 굳건히 선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온전하고 굳건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신앙으로 모시어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도 만일 힘이 없다면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지도 견고하고 소원도 분명하며 좋은 생각과 지략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하듯 강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며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터가 견고케 되도록 축복하소서

기초가 견고하지 않은 집은 곧 무너지며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 이리 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기초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터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잠시 동안 고난이 있을지라도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며 터가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앞에 기도하며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년 남선교회 · 여전도회 회장단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김영주 집사(모세 선교회 회장)

모세 선교회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본받아 선교분야에서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부족한 사람으로 중책을 맡게 되어 송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대변자 아론을 동행케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의 손을 잡아주던 홍과 같은 동역자도 주심을 생각하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온 회원의 기도의 후원을 힘입어 일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회에 소속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옆에서 보면 교회의 일을 책임지고 열심과 성실로 일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교회의 일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도 같아서 집을 건축할 때 30여 공경 각 분야의 책임진 사람들이 성실히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허자가 없는 공간이 완성되듯 교회도 각 부서에서 책임진 모든 일꾼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모세선교회(37-42년 생으로 구성)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명을 수행하기 위해 전도의 역군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모이기를 힘쓰며 직장이나 기업에서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삶의 현장에서 주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기도합니다. 2002년도에도 농어촌 100교회운동에 동참(2개 교회 지원)하고 70인 전도대 토요일전도팀에 적극 참여하며 잃은 양 찾기 운동 등을 통해 선교회가 배가되고 회원간 연합과 화평을 위해 협력할 것을 기도합니다.

이영숙 권사(마리아 여전도회장)



서설과 함께 희망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는 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전도회원 각자가 삶 속에서 전도의 생활화를 통하여 교회부흥의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며 정성어린 사랑의 손길과 기도를 모아 농어촌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과 신실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실행일치의 삶으로서 더욱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자꾸만 식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결단과 작은 믿음의 불씨들을 모아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타오르는 전도의 모닥불을 지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부족한 곳을 채워주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며, 서운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며, 또 잘못 했던 것의 용서를 구하며, 서로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즐거운.....그리하여 모이는 날을 기다리며, 모일 때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축제가 있는 마리아 전도회, 증거 하는 전도의 공동체, 섬기는 봉사의 공동체, 구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 회원들의 충성스럽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회 활동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면서 48년 생부터 52년 생까지의 모든 회원들이 모여 한국교회 갱신에 앞장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서울교회 모습의 작은 부분들을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월 셋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 11시에 서울교회 예배당에서의 복된 만남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조정식 집사(바울선교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천국 소식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전도하는 일에는 무능했으며 나약한 성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2002년도 바울선교회 회장직을 맡고 보니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거듭난 이는 평강과 의를 누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짐해봅니다.

바울 선교회 대상은 50세에서 55세까지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력하여 서울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성도간의 에-경사를 함께 나누는 전도기관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서로 격려하여 신앙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책임 있는 바울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집사(보비여전도회장)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장 부족한 저에게 보비 여전도회를 맡겨주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기에 부족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비 여전도회는 주안에서 가장 가까운 또래들의 모임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농촌 교회를 돕는데 한몫을 하는 모임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많은 열매와 새로운 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교회의 부족한 곳을 채우는 전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 뜻이 저와 보비 여전도회원 한 사람 한사람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故 강혜신 집사님을 追慕하며>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천사처럼 사시다가 꽃처럼 가신 강혜신 집사님, 오랫동안 유치부를 함께 섬기며 아이들을 위해 색종이를 접고 형집을 오리던 것이 바로 어제의 일만 같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면서 예쁜 모자를 쓰시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는 당신과 오래도록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화가 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매달리는 아이들을 귀찮아하거나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그 지극하신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조카 사랑을 우리는 본 받아야 합니다. 수년을 하루 같이 집이 먼 조카들이 행여 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할까봐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주일을 지키게 하신 당신, 연로하신 어머님의 수발을 다 들지 못하고 먼저 가심을 안타까워하신 당신, 아마도 주님은 그렇게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 당신이 필요하셨는가 봅니다.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어머님과 형제들과 조카들을 위해 애쓰게 기도하셨을 강혜신 집사님,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시며 주님의 몸 되신 서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우리는 당신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당신과 이별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숙 (11교구)

2002년 위원회에 들는사

이영기 장로(교육위원회)



200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예배당사대의 2차 년도를 맞는 저희 서울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속하여 있는 19개 교회학교가 주 앞에서 민족교회 교회학교로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모범이 되며 교회학교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서울교회 성도들과 조국과 세계 교회와 주님이 부르시는 세계의 온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신앙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연중 계속하여 국내, 외 성도들을 위한 교사양성을 위한 성경대학을 상설화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시대의 참 교사가 양성되기를 원합니다 교사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연중

제공하여 교사들이 계속하여 배우고 신선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충전 받아 재교육 받은 교사들을 통하여 소그룹 중심의 성경공부와 성도의 교제가 일년 내내 교회 내, 외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진리만을 교육하고 양육하여 신앙의 참된 모습과 신선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참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수많은 소그룹 중심의 지도 교사가 양성이 되고 서울교회 온 성도가 교회학교 학생으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역사가 교회와 이 민족과 국가 사회 도처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반 명 학생이 온집되는 교회학교로 부흥하는 대역사의 기초가 년 부년 이루어져 가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며 사는 목숨마저 미워 하던 청년 때에 군대에서 극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그 이후 내 삶을 인도하여 오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 자신은 그저 죄인이며 생명과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서 너무도 기뻐서 먼저 부모님에게 전도 하였으나 믿으려면 너 혼자나 믿으라며 요지부동이었다. 그렇지만 진리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으며, 내가 만난 예수를 어찌하든 부딪히는 이들에게 마치 내 부모에게 전도하듯이 간절히 권하며 말해 주었다. 때로는 열매 없음에 스스로 한심해 보였으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중 열 마를 선택적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얼마전까지는 교회가 집에서 좀 떨어져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기가 매우 힘들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제일 가까이에 집을 옮겨 주셔서 온 가족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늘 받아 아내와 함께 전도하는데 힘을 더욱 쏟게 되었다.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 놓치지 않으렵니다



김은태 집사(1교구)

나의 전도방법은, 첫째는 무차별적인 전도이다.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언제 또 만날지 모르므로 기회는 항상 지금뿐이라는 심정을 갖게 해 하신다. 그러면 손과 발이 그들에게 접근하며 입술은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교회자랑, 목사님 자랑으로 들어간다. 저들 영혼의 비참함이 내 영에 포착되면 도저히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헤어지는 것은 상도의 전도직무를 유기한다는 생각이 선뜻

들게 된다. 이것은 전략 없는 전도처럼 보여도 내 성격과 특성에 적당한 방법이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갖고서 한다. 나이나 성격이 문제인가, 남자라는 것이 문제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교회를 묻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내와 서울교회를 크게 말하고, 물건 살 때는 서울교회 다닌다고 말한다.

둘째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한다. 주변에 사는 친구와 옛 이웃들이 목표이다. 부단히 찾아보며 일단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설교 테이프와 목사님 책 등을 전해주며 교회 홈페이지를 알려 준다. 대개는 이사하면 반드시 등록하겠다고 말한다. 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여 반갑게 먼저 인사하고 아름다운 이웃관계를 맺고자 하며, 군에서 만난 나의 예수님을 기쁘게 간증한다. 그래서 아내의 전도대상과 나의 전도대상은 계속 증가하여 즐겁게 서로 기도하게 된다. 언젠가는 거두는 일의 기쁨을 가질 테니까.

이 모든 은혜를 간직하며 올해도 하나님이 붙여 주신 영혼은 놓치지 않으리라고 다짐해 본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를 맞다

지구반대편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오윤걸 (청년부, 시카고에서)

꿈만 같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들과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수가 있구나...

여동생에게서 송구영신 예배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인터넷 연결이 안되지는 않을까, 전송 속도가 늦어져 방송이 끊기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방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핸드벨과 트럼펫, 오르간의 아름다운 연주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들으며 기뻐했고 초가 하나하나 커지며 예배당을 아름답게 수놓는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방송을 보고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같이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서로를 마주보며 새해의 첫 인사를 나눌 때는 저도 모르게 눈가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2002년 새해 첫날 전 하나님께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시다. 언젠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며 같은 시각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었을 송구영신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던 때가 문득 생각나는군요.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음혜경(청년부)

새로운 한 해를 맞이 전 묵은 해를 보내는 핸드벨의 울림과 숙연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두움을 채우는 핸드벨의 연주로 시작하여 단상의 일곱 축대를 점화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당을 밝히는 잠로님들, 우리교회의 연명을 상징하는 11세 소년소녀의 축복행렬은 마치 시온의 영광이 서서히 우리 예배당을 메우는 것 같은 감격을 안겨

주었다. 위성중계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릴 국내외 동포들과 병상의 성도들과 못 백성을 생각하니 그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쳤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시간시간 속에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며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 나의 2002년은 그 분에게서 큰 힘을 얻으며 출발한다. 그는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인도 받기를 소망하는 일반 남았다. 이중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해의 축복'이란 메시지를 부여잡고 그 말씀 따라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여서 환경에 밀려다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환경과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그 중심의 아름다움으로

이인숙 권사(1교구)

현눈이 펄펄 쏟아지는 밤, 한해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평안함은 잠시, 곧 내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오기 시작하였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실 성도님들의 발길을 돌려 놓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11시가 가까워지며 차츰 눈이 멎기 시작하면서 눈길을 헤치고 오신 성도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 결국 2,3,4 층이 가득 차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고자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단장하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이 예배당의 웅장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려 그 중심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을 울렸다. 0시, 트럼펫과 핸드벨의 연주를 시작으로 목사님께서 입장하신 후 강대상의 일곱 축대와 각 의자의 끝에 초를 점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정성스레 내어놓고 예배를 시작하였다. 경건과 질서, 평안과 그 중심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0~11절이었다. 잠깐의 고난 후에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새기면서 등록 후 처음으로 맞는 송구영신예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서울교회에서 맞게 됨을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사랑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동정

- 이중윤 목사는 1월10일(목) 군선교연합회 신학 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참여한다.
- 이사: 서상근 집사, 김예환 권사(12교구로) 031-266-9497
- 득녀: 서범준, 이승혜 성도 가정
- 개업: 김차량집사 · 선연자권사 (12교구) '영남수퍼' 031-708-5771
- 개업: 이선우 집사 · 노옥자 집사 율현자동차 (중고 자동차매매상사) 3414-5050
- ☑ 금주의 식사제공: 유관모 · 조정인 성도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2. 새로 임명된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